

2017년 천주교부산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주님 공현 대축일

제1독서 이사야서 60,1~6

화답송 시편 72(71),1~2,7~8,10~11,12~13 (© 11 참조)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1.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2.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3.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4.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에페소서 3,2,3ㄴ,5~6

복음환호송 마태 2,2 참조

◎ 알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 음 마태오 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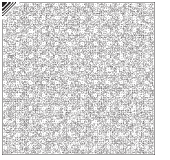
영성체송 마태 2,2 참조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고구마와 하느님 그리고 동방의 별



2018년 평신도 희년 새해 첫 주일, '주님 공현(公顯) 대축일'을 맞이하여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빕니다.

오늘 복음이 전해주는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아기 예수 때부터 온 세상에 알렸다'는 점입니다. **구원이**나, **너**, **우리**, **만민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만을 보고도 하느님의 구원을 알아들었는데, 수천 년간 구세주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은 왜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을까?”하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새롭게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저의 하느님 체험

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합니다.

1977년 중학교 시절, 저는 참으로 배고픈 소년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가득 쌓인 동네 구멍가게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배를 채워야 했던 그 설움은 너무나 컸습니다. 배고픔을 도저히 참지 못해, 자존심 다 팽개치고 외상으로 라면을 가져다 끓여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마저 두세 번 반복하기 미안해서 2~3일을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10~11월 고구마 철이 되면 무척 기뻐했습니다. 고구마밭 주인이 수확을 마친 후에 혹 빠뜨린 고구마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미로 땅을 파서 숨어 있던 고구마를 발견하고, 손에 높이 들었을 때의 기쁨이란...!!! 그때 그 고구마는 저에게 생명이었고 하느님이었습니다.

사제가 된 지금도 고구마를 생각하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습니다. **‘눈물 젖은 고구마를 먹어보지 않고서는 하느님에 대해 참으로 알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생애 단 한 번만이라도 ‘진리의 현존’을 목격하기를 소망했던 동방박사들에게 하느님께서 ‘동방의 별’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누구에게나 **‘별’은 있습니다.** 사건이든, 만남이든, 그것을 통해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별’의 모습입니다.** 저에게는 눈물 젖은 고구마가 동방의 별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배고픔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배고프지) 않는 당신을 찾았듯이, 세상 모든 이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자 행복 자체이신 당신을 찾게 하소서. 아멘.

서 정 응  
베드로 신부  
아미성당 주임



마르레의 참나무

독일의 한 지방에 작은 호텔이 하나 있었다. 어느 날 한 현자가 그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호텔의 늙은 청소부가 현자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이는 부귀공명을 누리고 사는데, 나는 평생을 호텔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고 한탄하였다. 가만히 듣고 있던 현자는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으로 고귀한 직분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신은 신이 창조한 지상의 한 공간을 일생 동안 날마다 깨끗이 쓸고 닦았습니다. 마치 성당의 제기를 닦는 것과 다름없이 그렇게 정결한 봉사를 했습니다.”

글. 강은교 글라라 시인(송도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8(월)~9(화)  
서정응 신부(아미성당 주임)

1.10(수)~13(토)  
연영 신부(아음성당 부주임)

..... **문자참여 #2340**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1.12(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밀양성당 주임)  
출연 : 서울대학교 하나로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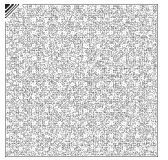
**신부들의 수다**

1.13(토) 13:00~14:00  
진행 :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  
신부들의 선곡표: 이추성 신부  
휴대전화기에 <팟빵>앱 다운받고 언제든 <신수다> 들으세요! www.podbbang.com



## Sure, why not? (그 뭐시라고!)

“미사 드리며 소통하는 남재! 미소남 3인방의 수다가 시작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가 되면, 전국으로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신부들의 수다' 방송이 시작됩니다. 방송을 처음 듣는 청취자들은 한결같이 “신부가? 신부님 맞나?” 하고 반응합니다. 성당에서 신자들의 삶과 멀게 느껴지는 모습과 방송에서 “신부님들도 나와 같

구나.” 하는 친근하고 웃긴 신부님들의 모습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부들의 수다'는 신부님과 청취자들의 삶을 함께 나누며, 웃음과 눈물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포기보다는 희망하자는 뜻에서 '그 뭐시라고!' 라는 좌우명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그 뭐시라고!” 불가능해 보여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 뭐시라고!” 라고 외치며 힘을 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방송 중 막연히 “교황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한 수다가 “그 뭐시라고!” 로 이어지면서, 지난 11월 6일, “에이~ 설마~”가 진짜로,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드디어 바티칸 광장에서 교황님 일반알현에 참석하게 되었

고, 교황님의 모습과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황님께서 제 앞을 지나가실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지고, 축복하시는 교황님의 모습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쁨의 열매를 맛보는 것을 보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벅찬 감동은 교황님 일반알현이 마친 뒤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이 희망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희망을 위해서는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낮춤과 희망이 또 다른 희망으로 나아가고 전달된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듯, 교황님께서 그러하시듯, ‘신부들의 수다’라는 방송이 그러하듯, ‘희망’과 ‘꿈’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Sure, why not?” “그 뭐시라고!” 하고 외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홍영택 베드로 신부  
선교사목국 부국장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 신부들의 수다

〈팟빵〉앱으로 언제든 〈신수다〉 들으세요!  
www.podbbang.com

방송 : 토요일 13:00~14:00

출연 : 홍영택 신부(선교사목국 부국장)  
김병희 신부(수명성당 부주임)  
이추성 신부(남천성당 제1보좌)

한치음  
교구가  
시작될 때

## ‘믿음의 해’에 믿음의 역사를 만나자

부산교구는 설정 50주년을 보내고, 2007년부터 교회의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 복음화’에 주력하여 신앙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지난해 교구설정 60주년을 보내고, 교구 미래를 위해 사목지침을 마련했고, 2018년부터 ‘신망애를 통한 본당 공동체의 영적 쇄신’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 첫해인 올해는 ‘믿음의 해’로 정하고, 우리 교구 초창기에 지녔던 굳건한 신앙과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며, 참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길을 새롭게 열어나갑니다.

흔히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E.H. 카)라고 합니다. 이 대화는 현재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역사학의 이런 특성은 교회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불어 교회 역사는 믿는 이들이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했던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이 고백과 증거는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여 현재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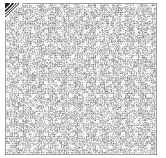
인들이 신앙을 실천하는 데 좋은 모범으로 작용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역사는 죽은 과거 사건이 아닌 살아 있는 현재의 일입니다. 이 같은 교회 역사의 현재성 때문에 우리는 교회 역사를 소중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구가 걸어온 길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교구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비평이 가능하며, 교구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 선배들이 보여 주었던 믿음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현재와 미래 교구 발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자신이 교구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구 역사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믿음의 실천, 믿음의 열매 등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믿음의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건 신부(순교성지사목) handom@naver.com





저는 복지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일하고 있는 29살 '한민석'입니다. 제가 가는 복지관의 선생님들과 그리고 수녀님들은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참고맙습니다. 그런데 때로 다른 어른들은 무시하기도 하고 불쌍한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지적장애인'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꿈이 궁금하세요?

어렸을 때 동생과 저는 배가 고파도 꼭 참고 추운 날도 더운 날도 지하철역이나 공용 화장실에서 잠자며 늘 술에 취한 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어린 노숙자!' 다른 어른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답니다. 음... 엄마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동생과 저는 다른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쉼터' 라는 곳, 생활 시설이라는 곳으로 옮겨 다니며 살았는데 그래도 춥지 않고 배고

프지 않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라나 성인이 되었고 저는 시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뿐인 동생과 헤어져야 하는 순간! 우리는 그곳을 떠나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동생 덕에 우린 '임대주택' 이란 곳에서 살 수 있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이나 밤늦게 해야 하는 일들, 남들은 더럽고 위험하다고 하지 않은 일들만이 주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을 수 있으니 서로 의지하며 평생 같이 살자고 약속하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를 돕겠다고 새벽에 일 나가던 동생이 그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1년... 동생과 제가 행복을 꿈꾼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동생이 없는 세상이 너무 밍고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

다. 사랑하는 동생도 가버렸고 우리가 살던 임대주택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망도 많이 사라져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녀님과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오늘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틀리지 않게, 빼먹지 않고 하려고 열심히 따라 합니다.

제 꿈은요, 지금은 춥고 힘들지만 돈을 모아서 비록 동생은 없지만 동생과 함께 살던 임대주택에서 다시 사는 것, 제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민석 씨(가명)의 부모는 어려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알콜중독으로 노숙자였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고 2016년 의지하며 함께 하던 동생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9살 지적장애를 가진 민석씨는 지금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 일을 하며 독립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 부산교구



성경에 보면, 하느님께 청하면 다 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하느님께 아무리 청해도 원하는 것은 하나도 들어 주시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잔뜩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정말 저에게는 가혹하신 듯합니다. 그런 하느님을 따라야 할까요?

어느 교도소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느 죄수가 교도소에서 가석방을 위해 모범수로서 열심히 살아가며 가석방 심사에서 자신 자격이 된다고 강력 주장하지만 번번이 심사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가석방에 대한 모든 기대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석방 심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석방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도 늘었고, 밖에 나가 봐야 뭐 하겠습니까? 교도소에서 반평생 살았는데 그냥 여기서 남은 여생을 지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석방 담당자는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립니다. 하느님은 어쩌면 항상 뼈뺀 가석방 담당자 같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안달하면 할수록 안 주십니다. 모든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심지어 체

념할 때 슬며시 주십니다. 도미니크 바르텔르미라는 성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에게서 온다. 하느님은 먼저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느님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 완전히 포기된 상태, 철저히 뿌리가 뽑힌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부유하게 하신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시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어떠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느님 손에 맡겼을 때, 하느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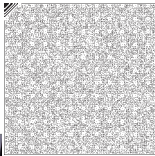
■ 권순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albkw93@hotmail.com





교구  
순식

# 2017년 사제 · 부제 서품식 (2017. 12. 29.)



새 사제



새 부제



사제직, 부제직 서품 후보자 선발



사제, 부제로 선발된 이의 서약



복음서 수여



안수와 서품 기도



영대와 제의 착의



손의 도유와 평과 포도주 수여



제의방에서 대기 중인 새 사제



서품자 부모 대표 예물 봉헌



새 사제, 부제 신앙고백 및 총성서약식(12.28.)



공동집전하는 새 사제



새 사제 첫 강복

교구 홈페이지에서  
서품식 동영상 및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성인 호칭 기도

♣ 11일 : 레우치오, 베드로, 비탈리스, 살비오, 세베로, 아나스타시오, 알렉산데르, 에테니아, 타소, 타토, 테오도시오, 토마스, 팔도, 팔레몬, 피델미아, 호노라타, 히지노



1월 교구 혼인강좌 안내

예비부부와 기혼부부 모두 수강 가능
[부산 지역] 1.21(일) 15:00~18:50
사전 접수 / 선착순 5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 462-1870, www.bcccenter.or.kr(가톨릭센터)
[울산 지역] 1.28(일) 14:00~17:50
사전 접수 / 선착순 30커플 / 당일접수 불가
문의 : (052)201-6505, ulsan.cath.kr(울산대리구)

예신 피정(1차, 2차)

1차(초6 남학생) : 1.8(월) 14:00~9(화) 13:00
2차(중1 남학생) : 1.9(화) 14:00~10(수) 13:00
· 푸른나무 교육관 / 문의 : 629-8760~2(성소국)

가야성당 1월 성령치유대피정

· 1.9(화) 12:30~17:00
· 가야성당(지하철 2호선 동의대학역 7번 출구)
강사 : 이영숙 수녀(한국복자수녀회), 이병주 신부(미사, 안수, 고해성사) / 문의 : 010-6679-5345

동래성당 사무장 구함

자격 : 회계, PC(엑셀 가능), 운전 가능(1종 보통)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555-2295

모라성요한성당 관리자 구함

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자격 : 운전면허(1종 보통) / 문의 : 316-1009

문현성당 관리자 구함

서류 : 이력서, 교적사본
문의 : 647-5651

교구 설립 수도회인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가 아래와 같이 개명했습니다.(시행일 : 2017.12.1.)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성령강림 사도 수녀회

데잇 부산교구 청년사목위원회 '데잇'은 본당의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월 1회 교리 및 활동 자료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2017년 8월에 결성된 '데잇'은 교회의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무엇이든 시작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또래 청년들입니다. 청년회는 본당에서 봉사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목의 보살핌을 받고, 교리교육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잇'은 앞으로 본당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받는 곳 1. 청소년사목국 홈페이지-커뮤니티-공유자료실 2. 매월 첫째 주 교구 후보 내 QR코드 3. 청년연합회 페이스북 페이지 및 카카오톡 플러스 '데잇' 친구 맺기 4. 인쇄물 20-30부
청소년사목국 홈페이지 www.puna.kr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교구 철야기도회
· 1.12(금) 22:30
강사 : 김순덕 자매(마산교구)
- 젊은이 성령기도회
· 1.8(월) 19:30 전포성당
· 1.10(수) 20:00 울산대리구 별관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묵주기도(도유안수)
· 1.8(월) 11:00 / 중식 제공
- 수요치유기도(버스안내카드 참조)
· 1.10(수) 11:00~16:00 / 점심 제공
- 교구 성령묵상회(일반)
437차 : 1.19(금) 19:00~21(일) 17:30
438차 : 1.26(금) 19:00~28(일) 17:30
회비 : 10만원 (교재비 5천원)
18:3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기도회
· 1.11(목) 20:00~23:00
강사 : 박주병 형제(서울대교구)
- 100단 묵주기도(미사·안수, 점심제공)
· 1.15(월) 09:00~17:00 울산 영성의 집

부산ME 소개모임

울산 : 1.14(일) 14:30 복산성당
부산 : 1.15(월) 20:00 남천성당
354차 ME 주말 : 1.26(금)~28(일)
사랑방 ME 소개모임 : 수시 / 문의 : 010-2703-0155 010-4872-5051(울산), www.mekorea.or.kr/bs

파티마의세계사도직 1월 묵주기도 100단

· 1.8(월), 15(월), 22(월) 09:30~
· 푸른군대 경당 / 문의 : 646-3746

음악교육원 제27회 정기연주회

· 1.9(화) 19:30 · 양정성당
문의 : 517-8241~2, www.bcmusic.or.kr/mec

제27회 겨울음악학교

· 2.2(금) 08:00~3(토) 18:00 ·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주제 : 새 미사경본에 따른 전례음악 / 과목 : 발성법, 합창지휘, 그레고리오성가, 전례특강
신청 : 1.21(일)까지(선착순 120명)
수강료 : 일반 19만원(마감 이후 20만원)
문의 : 517-8241~2, www.bcmusic.or.kr/mec

오순절평화의마을 입소 안내

주변에 아래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면 안내바랍니다.

[입소 대상자]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노숙의 위험이 있는 자로서

① 무연고자 ② 연고자의 노령이나 사망으로 부양이 어려운 장애인 ③ 연고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로서 생활능력이 없는자
\*부산/밀양 이외 지역은 입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 : (055)352-4241(내선816/818)

(주) 씨피여행사
1.4/15 스페인도보100순례 13일 325만원
2.4/21 이스라엘 도보순례 12일 420만원
3.4/23 스페인포르투갈 순례13일 405만원
4.4/26 이스라엘(맛사다) 9일 375만원
247-5858, 010-3837-6434 부산출발
AND.CAS 전자저울,로드셀,도매전문 계량시스템, 토트센서,계측기,교정검사 증량선별기,금속검출기,충전-캠핑 설비
정인엠테크 [www.castotal.co.kr]
324-4800, F.319-0550
010-3256-6299
김영균(나사오) 김은숙(유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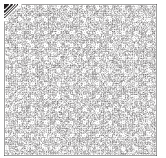
엘치과
임플란트 치주 전문 최홍배 (베드رو)
치아교정 전문 성지현 (아베스)
751-2882
해운대 이마트 옆 센트럴메디타워 10층 (중동역 7번 출구)
부산유일 노인복지주택
힌돌실버타운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부부(또는 단독)
전화·방문(휴무일) 상담 가능 매일 10시~17시
http://www.rosa.or.kr
758-6231, 7 · 010-5574-6231

결혼예복, 예단, 천연염색, 한복대여
협성주단·한복
강영숙(헬레나) 이용복(안드레아)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269~271호 (7호선 안국)
646-1123
010-3594-2137
임플란트, 틀니, 심미치료
뉴욕플란트치과
원장. 송현엽(가브리엘)
미국 뉴욕치대 유학
634-2828
지하철 1호선 법일역 10번 출구 바로 앞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스마일정경우비뇨기과
정경우(시몬)
전 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신세개혁신명맞은센트럴타워메디칼 2층
744-8181 www.bmu.co.kr
상담 010-5616-8600
삼진커튼
수입커튼, 완제품커튼,
우드브라이트, 콤비브라이트
이영복(요셉) · 김미현(마리아)
010-8546-2453
부산진시장 1층 11호문 앞

서울성형외과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국내 최대의 성형외과 그룹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정형(T.아퀴나스)
http://seoulsps.co.kr
818-3131
롯데백화점 부산점점 후문 앞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2/17 이스라엘 이탈리아
11박 12일, 경비 : 448만원
2/18, 3/11 성모님발현지
12박 13일, 경비 : 375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 농아인선교회 1월 수화교실 수강생 모집

신청 : 1.15(월)까지  
[기초반, 중급반] 주 2회(화, 목) 총 24회  
첫모임 : 1.9(화) 19:00 / 수강료 : 5만원(교재비 별도)  
\* 부산가톨릭농아인선교회, 복지회 2층  
\* 수강 인원 정원 미달시 폐강 될 수도 있음  
문의 : 751-8693, 010-8001-4435(심은경)

### 교육 · 모집 · 기타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1.8(월) 11:00 · 부곡동수녀원  
· 1.9(화) 10:00 · 이기대성당  
· 1.10(수) 10:00 · 월평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 비아회 원로 사제를 위한 미사

· 1.8(월) 10: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례 : 김정렬 신부 / 문의 : (055)367-2214

#### 새해맞이 묵상 관상기도 피정과 미사

· 1.11(목) 14:00 · 가톨릭센터 3층 / 무료  
문의 : 010-3332-8789(가르멜동정녀회)

####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후원회 미사

· 1.11(목) 14:00 · 푸른군대 경당  
문의 : 634-4820, 636-4819

#### 예수고난회 은인 1일 피정

· 1.15(월) 14:00~17:00 · 중앙성당 소성전  
주제 :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요한 20,24~29) / 강사 : 강수근 신부  
문의 : (02)924-8627, 010-3579-7560

####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 향기나는 길-LD모임

· 매주 목요일 19:30~21:00 · 수녀원  
대상 : 35세 이하 미혼여성 / 문의 : 010-8551-3312

####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대상 : 청소년, 성인, 부부(비신자 포함)  
내용 :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성장 등  
상담사 : 홍영미 수녀(심리학박사, 가톨릭상담사1급)  
상담 : 화~토 10:00~17:00 / 문의 : 581-3114

#### 말씀학교 영성강좌(바로로 서간)

· 1.31(수) 10:00~12:30 · 가톨릭센터 / 무료  
강사 : 양은철 신부(성바로수도회) / 미사 준비  
문의 : 010-9333-6260(년 3주)

####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4.23(월)~5.5(토) · 서유럽성모성지  
순례경비 : 460만원 / 선착순 / 대한항공  
부산 출발 / 문의 : 010-3837-6434

#### 마리아수녀회 알로이시오기념병원 간호사 모집(병동 3교대)

문의 : 256-3045

#### 사회적기업가 창업팀 모집

자격 : 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팀  
모집 : 1.19(금)까지 / 신청 : 부산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www.cup.ac.kr) 행사모집 참조  
지원 : 창업자금 3천만원, 사무공간, 멘토링 등  
문의 : 510-0948(부산가톨릭대학교사회적경제센터)

#### 성골롬반 평신도선교(해외) 관심자 모임

· 1.14(일) 14:00~17:00 · 평신도선교사센터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도보 5분)  
문의 : 010-5003-5628, clmkorea@gmail.com

#### 서울삼성산성성지 1월 치유대피정

· 1.12(금) 18:00~14(일) 15:00  
문의 : 010-7375-4600 / 09:00 서면 출발

#### 제주 성 이시돌 자연피정

· 1.17~19, 1.23~26, 2.2~4, 2.6~9, 2.23~25, 3.2~4 / 대상 : 개인, 가족, 분당, 단체 등  
내용 : 울레, 미사, 기도, 강의 / 문의 : (064)796-9181

####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 역사 · 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울레길 · 오프트레킹  
· 1.14~16, 1.26~28, 2.3~5(한라산) 2.25~27, 3.3~5, 3.12~14  
문의 : (02)773-1463, (064)756-6009

#### 성경 거룩한 독서 피정

· 1.19~21, 3.16~18, 4.20~22, 5.18~20, 6.22~24, 9.14~16, 10.19~21, 11.16~18, 12.14~16  
금 14:00~일 14:00(2박 3일) / 피정비 : 15만원  
· 경남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강의 : 유덕현 신부 / 문의 : 010-2816-1986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1.14(일) 14:00	광안동 본원	010-8551-3312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13(토) 14:00 14(일) 10:00, 14:00	부산 본원 및 원하는 장소	010-9319-1690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상담	부산 본원	010-9199-4995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2018학년도 편입학 원서접수  
■ 원서접수 1월 8일(월)~12일(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up.ac.kr) 참조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2018년 슬로건**  
뿌리깊은 나무, 메리놀병원  
명품병원이 되겠습니다!  
문의 : 461-2201~4

가톨릭선원 복음 문화 나눔  
행복한 세상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위한 합창단원 모집  
대상 : 고음악 합창음악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1차 오디션, 1/15(월) 20:00 가톨릭센터 302호  
- 자유곡 1곡과 Polyphony초연(악보 당일 제시)  
정기연습 예정일, 매주 월요일 19:00 가톨릭센터 302호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 를 찾습니다! 후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눈시원안과**  
이 현 석 (분도)  
전. 국모닝 성모안과 공동원장  
백내장, 노인교정, 라식/라섹, 드림렌즈  
631-6622  
상곡회소 옆 이샘병원 3층

매매 · 교환 · 위탁 · 폐차 · 각종보험  
각종 차량 구입 및 등록 대행, 정비 상담  
**일산자동차매상사**  
대표 조남철(테레오) 010-3573-8797  
르노삼성자동차 신차의 모든것  
(SM6, SM세리즈, QM세리즈)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모니카주단 · 한복**  
혼수예단, 결혼예복 전문  
황 위 식(레오) 김 필 분(모니카)  
645-5127, 010-3553-5127  
부산진시장 1층 주단부 152호(1층 4호분 중간)

임플란트, 틀니, 유지관리 전문치과  
**라이프치과의원**  
치의학 박사, 최 해 훈(바로로)  
치의학 박사, 박 찬 아(요한 금구)  
743-3334  
해운대 31번 종점 맞은편

**백천피부과의원**  
(구) 괴정동 백천피부과  
조광윤(안토니오), 김정민(아렛따)  
758-1100 지하철수영역 3층출구  
기미·잡티·여드름·홍조·에스테틱

**이삿집은**  
**우리트랜스로**  
582-1414  
010-4042-8662  
돌아가신 분 유품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 변성만(요한) · 권명숙(로사리아)

재활전문  
**수요양병원**  
재활 · 작업치료의 명품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입원상담. 750-7000, 7080  
오 세 문(베드로)

**라파엘여행사**  
1/30 이스라엘 일주 9일 359만원  
2/9, 2/14 이스라엘,요르단 10일 299만원  
3/5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299만원  
3/5 이스라엘,이태리 12일 399만원  
성지순례 (02)778-8565

부산최초제조허가,KGMP(우수제조)인증업체  
복귀카드소지자(수급자)무료제작,입원90%혜택  
**독일보청기**  
독일, 미국, 스위스 수입디지털보청기  
맞춤형 당일 제작, 즉시 수리  
김 무 나(글라라) \* 교우 특별 할인 \*  
803-5588, 1871  
서면 지하철역 4, 6번 출구(1층, 빨간색 간판)